

1. 교회가 아닌것:

1) 유대인의 경륜이 다른 이름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.
-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(마 11:13):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을 통한 은혜는 각각 다른 세대.

2). 교회는 왕국이 아니다:

-침례인 요한이 말한 천국(kingdom of heaven)은 구약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야가 다스리는 왕국이다.
-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지(엡 1:22;4:15, 골 1:18), 교회의 왕으로 언급되지 않는다.
-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관계이다.

2. 교회란 무엇인가?

1) 교회는 신비다:

선지자들에게 가려진 신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(벧전 1:9-12)
- 교회의 신비는 바울에게 처음으로 계시됨(엡 3:1-11)
-교회는 구약의 아브라함, 이삭, 야곱 같은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았다.
-신비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로운 몸을 이루어 되는 것이다.

2)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한 몸이다:

-헬라어의 에클레시아: 불러냄을 받은 무리나 모임
-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, 죄인들을 교회로 불러모으는 것이다.
-교회는 어떤 민족적인 몸이 아니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으로부터 개개인을 불러 모아 이루어진 특별한 몸이다.
(유대인은 민족적인 몸)

3)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:

-엡 1:22-23: "또 만물을 그이 발 아래 두시고,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.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."
-엡 1:20(찾을 것)
-고린도전서 12:12-13(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설명(찾을 것))
-그러므로 교회는 오순절날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다.
-엡 4:4-6(찾을 것)
-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결코 죽을 수 없다. 왜냐하면 살아있는 머리에 죽은 몸이 붙어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.(계 1:18-찾을 것)
-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다.
-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이다.(빌 1:21-찾을 것)
-온전한 사람: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라면 그 둘은 온전한 사람이야 한다(엡 4:11-13-찾을 것)
-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건물로, 즉 성전으로 비유(엡 2:21-22)
-오순절 이후 지금까지 교회(그분의 몸)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.
-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성전에 임재하셨고, 현재는 교회 안의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시지만,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인격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다.

4)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:

-현재 교회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한 순결한 처녀이다(고후 11:2)
-처음 아담이 그의 신부 이브를 맞이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도 그분의 신부를 맞이해야만 한다(창 2:18,21-24)
-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홀로 계셨다.

-그러나 그분이 깊은 잠, 즉 죽음의 잠에 드셨을 때 그분의 찢린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했으며, 오순절 날 성령은 그 교회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다.

-아담이 이브에게 "내 뼈들 중의 뼈요, 내 살 중의 살이니"(창 2:23)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"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"(엡 5:30)고 말할 수 있다.
-이삭이 신부를 맞이하는 내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불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예표적으로 볼 수 있다.
-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, 사라는 이스라엘의 예표,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, 엘리에셀(아브라함의 종)은 성령의 예표, 리브가는 교회의 예표
-성경에는 두 신부가 언급: 하나는 ○○여호와와 신부인 이스라엘이며(사 54:5-8),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이다.

3. 교회의 기원:

-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(마 16:13-20)
-반석이신 그리스도(행 4:5-12, 고전 3:11, 엡 2:20-22)
-지옥의 문들: 끝없는 큰 구렁을 사이에 두고 낙원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다(눅 16:19-31)
-예수께서는 회개한 한 강도를 낙원에서 만나셨으며, 죽어서 지하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 부활시켜 하늘로 옮기셨다.(첫열매들)

-누가 교회에 속하는가?

-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어 후거 때 공중재림으로 끝난다.
-그렇다면, 교회에 속한 신부는 이 두 사건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들일 것이다.
-구약성도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었다. 그 당시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
-모든 혼인식에는 언제나 여러 축하객들이 신랑과 신부 옆에 있기 마련이다. 그들은 신부 들러리, 꽃나르는 소녀, 친척들, 그리고 초대받은 손님들.
-요한계시록에 19:19 "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."
-신부는 초청받은 것이 아니고 당연히 참석해야 할 사람이다.
-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손님들이다.
-"왕의 아들의 혼인잔치"의 비유에서(마 22:1-14) 초대받은 사람들은 손님들이지 신부가 아니다.
-구약시대의 유대인을 대표하는 침례인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밝혔다(요 3:29)
-후거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일어날 것이며,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대환관 때 구원받은 "피로 씻은 무리"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. 그러나 이들은 복받은 자들이지만 신부는 아니다.
-천사들도 이 장면을 구경할 것이나 이들은 초대받은 손님도 아니다.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들에게만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.

4. 교회의 사명:

-교회는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이다.
-교회란 어떤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사회단체가 아니며, 인간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사교장도 아니다.
-교회는 불신자들의 돈을 모아 가난한 회원들을 돕기 위해 면죄부나 어떤 상품을 파는 상점도 아니다.
-교회는 또한 사람들의 타락한 육신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복지단체도 아니다.
-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(롬 1:116)

5. 교회의 운명:

-교회는 하늘로 끌려올라가게 된다(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)(살전 4:16-17) (요 11:25-26)(고전 15:51-55)(고후 5:1-4)(빌 3:11-14)